

# 신도자격 현실화 필요 신도교무금 폐지 '한목소리'

### 조계종 '포교-신도법 제·개정' 토론회

조계종 포교원(위원장 정연)은 15, 16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포교·신도법 제·개정 기본안에 대한 토론회를 잇달아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도등록 사업과 신도증 발급의 실효성, 신도의 자격문제, '전교사'의 용어 문제, 신도단체 임원 등에 대한 교육이수의 현실성 등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16일 중앙신도회와 신행단체, 조계사 신도회 등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신도등록이 16만명에 그친 것과 관련, 신도증의 무용성과 사업의 비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포교원이 신도등록 사업을 교구 본·말사로 이전하되 신도증 양식을 통일하는 선에서 관리에만 그치고, 신도교무금도 폐지하는 것이 신도 확보 등 현실에 맞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참석자들은 신도등록을 전후해 5계를 수지하고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선 신도등록, 후 교육 및 수계'(삼보에만 귀의해도 '신도')가 사찰의 현실과 맞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전교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전교사'라는 신조어가 개신교식의 낯선 용어라면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법사를 인용한 '전법사'가 적합하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의 전문교육 이수과 관련해서는 120시간 정도의 교육시간이 소요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신도단체의 조직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

려가 있으며, 청소년 장애인 대학생 등 계층별 교육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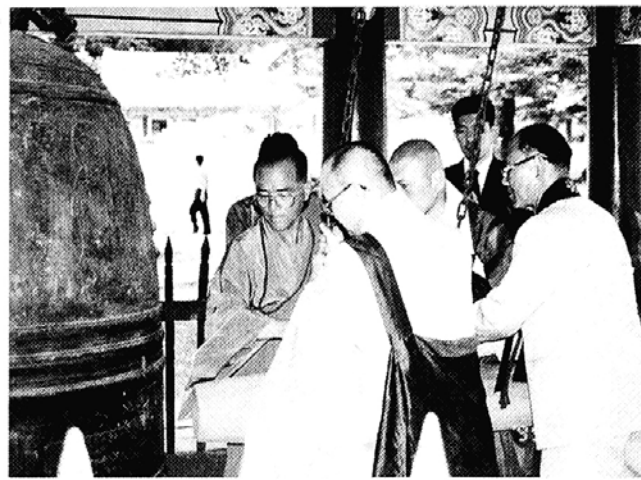
이날 참석자들은 신도 교육(재교육 포함)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을 표시했으며, 현실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선에서 가능한 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선 15일 포교위원장 정연,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지홍, 간사 지현, 종헌종법개정특위 위원 학남, 동국대 교수 각현, 삼보사 주지 지인스님과 포교 일선의 젊은 스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첫날 토론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기본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신도법 제·개정으로 인해 야기될 혼란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과 탄력적인 운용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신도교육 및 수계 자격, 활동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되 기한과 자격기준 등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존의 신도들에게는 경과조치를 두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포교원은 앞으로 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25일), 불교교양대학 대표자회의(7월1일), 종합공정회(7월10일), 설문조사(6월10일~7월3일)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안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오는 7월 중앙종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jkim@buddhapia.com)



◇보현사에서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통해 화합에 앞서 지선, 성조스님과 보현사 주지 최형민선사 등이 타중하고 있다.

# 남북불교교류 '디딤돌'

### 불추위대표단 첫 방북 의의

이번 불교대표단의 방북은 조분련의 첫 공식초청으로 이루어졌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특히 방북대표단의 방북을 통해 합동법회 봉행, 남북 불교문화교류 합 등의 성과를 얻을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남북 불교교류에 밝은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조분련이 불추위 대표들에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것도 진일보한 모습이라는 평가다.

방북대표단과 조분련은 2차례에 걸친 남북불교대표회담을 통해 남북불교간의 교류와 협력, 신뢰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순수한 민간차원의 교류를 우선한다는 남측의 주장에 대해 조분련은 교류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긴장을 초래

### 보현사 합동법회 찬불가 함께 부르며 반야심경 봉독

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불교도가 나서야 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펴기도 했다. 북한 불교계가 가장 중심에 두고 남한불교계를 바라보는 것은 정치권과의 상관관계라는 것이 방북단의 분석이다. 논의 과정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방북과 관련한 내용이 나왔을 때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는 상황이 되면 방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대답에서 반증된다.

그럼에도 교류에 대해서는 조분련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어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 방북소감

**지선스님**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10여 차례 초청을 받은 바 있지만 이번이 첫 방북이다. 이번 방북은 조분련에서 남측대표를 최초로 초청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남북관계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물질의 제공도 조건없는 무주상 보시가 돼야 한다. 북한은 이미 열변과 굶주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의 본질대로 대할 때 민족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번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

성보문화재단 사명대사 철모자, 백제금동반가사 유상 등을 잘 보존하고 있었다.

평양에 들어갔을 때 긴장이 됐지만, 과연 북한까지 와서 얼마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만나서 일정조정과 인사나눔, 면담을 했을 때 순수한 마음을 보았다.

북한은 한민족이요, 같은 동포라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다. 우리가 길을 열어놓았기에 이후



◇불추위는 지난해 대불련 회원들이 사경한 반야심경을 봉독하여 조성한 불상을 조분련에 전달했다. 조분련 박태화 위원장이 지선스님(왼쪽)에게 불상을 전달하고 있다.

좋은 성과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평양 광범사는 1천2백여명이 신도로 등록했다고 한다. 분단 50년만에 공식초청으로 남측 대표단이 방북해 북한불자들과 함께 법회를 봉행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왕래하며 불법을 논하고 만남을 갖도록 하겠다.



문화재청 서정배 초대청장

# "문화재 보존관리 적극적 행정 필터"

12일 문화재청 초대청장으로 임명된 서정배(57)씨는 "국민 모두가 문화유산과 친근해지고 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맡음을 열었다. 문화재청의 운영과 성보문화재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보았다.

- 정부가 성보문화재 복원을 돕는 것에 대해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특정 종교에 편향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불교 관련 문화재건 다른 종교 문화재건 그것을 복원하고 가꾸는 것은 당연하다. 편향적 후원이라는 사람들 자체가 편파적이다. 유산은 바로 우리의 일상과 종교에서 나오는 것이다.

- IMF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보수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청의 대책은.

▲예산의 한계를 갖고 있는 현실이지만, 담당자들의 '의식의 무장'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본다.

- 문화유산 가운데 성보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른다. 불교계와 더욱 긴밀한 협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원칙적으로 청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곳이지, 종교계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곳은 아니다. 또 청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에는 불교 뿐만 아니라 기독교 원불교 등과 관련 있는 문화재들이 많다. 불교계와 직통 라인을 개설하면 타종교의 반감을 살 수도 있다.

- 불교계는 문화재청이 전문성 있는 기구로 발전하길 바라고 있다.

▲미시적인 전문성만으로 모든 행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한 소신과 그것을 실현시킬 적극성이 중요하다. 또 연구기관의 활성화 없이 문화재 업무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장기적 발전 대책에 대해 고민하겠다.

- 문화재청이 나아갈 방향은.

▲문화유산을 통해 우리들은 선조들의 지혜와 삶의 숨결을 이어받았다. 우리의 후손들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문화유산 보호의 효과적인 관련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국립박물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약력** 42년 서울출생, 성균관대 졸업, 국립현대미술관 사무국장, 예술원 사무국장, 문화체육부 관광국장 역임.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태양은 밝고 따뜻한 햇살을 무심(無心)히 내리 비추고 있지만, 인간의 햇살은 유심(有心), 즉 차별심에서 시끄럽기만 하여라. 보살은 무연중생(無緣衆生)을 제도하므로 분별심 없이 무주상(無住相)으로 함없이 중생을 제도하지만, 중생은 인연에 따라 주고 받으므로 대가성 거래를 하여 차별상(差別相)으로 인연만 쌓이고 있다.

(화엄경)에 보시에 대한 말씀이 있다.

"불자여! 보살은 큰 시주(施主)가 되어 온갖 가진 것을 다 보시하되, 그 마음은 평등하여 후회하거나 인색함이 없으며, 과보(果報)를 바라지 않으며, 명예를 구하지 않으며, 이익을 탐

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온갖 중생을 구호하고 온갖 중생을 이롭게 하기만을 위한 뿐이다."

우리의 형제이면서 적인 북한을 포용하여 그들을 가난과 굶주림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이라는 우주를 싸고도 남을 거창한 제목을 걸고 다방면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육로로 수로로 살도 비로도 소때도 보내고 금강산에도 가서 관광케도 남부하는 등 많은 보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햇볕정책의 보시들이 무심의 태양처럼, 무연중생을 제도하는 무주상의 구원처럼, 대가와 명예를 바라지 않는다면 오죽 좋으리요마는, 세상 인간의 마음에 어

디 공짜가 있는가. 주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받는 사람 역시 몹시 부담을 느끼게 된다. 아무리 가난하여도 남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굶어 죽어도 거부할 수가 있으며, 설사 받아도 고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북한을 포용하겠다는 햇볕정책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과시적 물질 살포는 북한의 자존심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지 않을까?

가난한 이웃을 말없이 돕고 남이 모르게 위할 때 받는 사람은 스스로 감동할 수 있고 마음에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다. 남측에서 북쪽을 포용하겠다는 것을 북한은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

서해에서 포성이 울리고 격전이 벌어졌다고 하지만 쌀이나 라면을 사재기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무감각해서일까, 불신해서일까, 설마 전쟁일까 하는 의심도 하지 않는다. 마치 병정놀이쯤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현실 정치이다. 이제 정부의 모든 정책이 그러해야 할 테지만 특히 대북정책일수록 과시적인 것보다는 진실하고 실제적이며, 흡수 포용적인 것보다는 동화하여 민족애를 자아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감화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참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은 과시적 성과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무주상 보시를 실현하면 좋겠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본지 논설위원)



### 햇볕과 포용

# 생활속의 삼매체험 선 수련회

### 참선생활운동 99전국 여름수련

### 1, 2차 - 전북 금산사 3차 - 제주 원명선원

내가 바르면 세상이 바로 보이고, 내가 비뚤어지면 세상도 비뚤어 보입니다.  
내가 남을 속이면 남도 속이는 사람같고, 내가 정직하면 남도 정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남이 그릇되게 보이는 것은 내가 그릇된 때문이며, 나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나에게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을 모두 고치고 비뚤어진 세상을 다 바꾸려면 요란하여 시끄럽기만 할 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허물과 비뚤린 마음을 바로 하면 세상이 모두 바로됩니다.  
우리 각자 마음의 삼매를 닦아 나를 고치면 세상이 편케됩니다. 본래 번민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삽시다.

❖ 취지 : 내가 없이 사람이 실존된 맹목적이고 타성에 젖은 삶이 과연 사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까? 참선 생활 운동에서는 3박 4일의 수행중 누구나 곧바로 마음 자리를 닦아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 순간 깨달음의 삼매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수련일정 :  
1차 8월 2일 - 8월 5일 (3박4일) 200명 전북 금산사  
2차 8월 7일 - 8월 10일 (3박4일) 200명 전북 금산사  
3차 8월 13일 - 8월 16일 (3박4일) 50명 제주 원명선원

❖ 특징 : 1. 본 원의 수련은 통상 극기적인 수련이 아니며, 깨달음으로 다가가는 삼매를 체험할 수 있음.  
2. 수련후에 삼매를 체험할 수 있음.  
3. 수련후 생활중에 삼매 생활이 지속적으로 가능토록 지도함

❖ 선착순마감 : 선착순으로 7월 10일까지, 마감후에는 현장에서는 접수안됨 (3차의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은 항공 이용시 예약을 곧바로 하여야함)

조속히 접수후 안내를 받아야함. 항공 이용자는 가능하면 팩스로 속히 우송바람)

❖ 대상 : 일반인(고교생은 보호자 참석시 가능함) 65세 이하

❖ 자원봉사신청 : 매 차수별 7명내외 (회비없음)

❖ 회비 : 8만원 (온라인 능협 953-17-000706, 우체국 510016-0120528 예금자 : 원명선원)

\*입금후 반드시 담당자 통화요함. 접수자는 개별 통지 받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신청서류 : 1. 이름(한자, 한글) 2. 주소 3. 전화(주택,직장,휴대전화) 4. 종교 5. 주민등록번호 6. 직업 -학교(과)반 7. 참가동기 8. 수련회참가경험 유무(유경험자는 언제 어디서 기간) 9.원하는 차수를 지망차수 1지망부터 3지망까지 기재

❖ 일상수행내용 : 수행중목언, 법문, 점점, 행선20-30분, 좌선10-20분, 예불, 선문독송, 염송

❖ 접수처 : 제주도 화북1동 원명선원 참선생활운동

☎ 064)755-3322 전송 : 064)755-8913

참선생활운동 · 한라산 원명선원